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Urban Residents' Perceptions of Agriculture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도시민의 농업 인식을 분석하였다. 2024년 6월, 온라인 설문을 통해 1,042명의 응답을 수집하고 StataSE17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9.3%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금 투입에도 82.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농업의 고소득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고(37.7%), 노동 강도와 기술 부족이 주요 진입 장벽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업 종사 의향은 38.0%였으며, 동기는 다양성과 친환경성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농촌의 인구감소는 농촌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업 종사 인구가 줄고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 인구 역시 동반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입과 유지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재고해 보려 한다.

2. 연구방법

농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종사자의 연령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청년층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터넷 조사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설문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로 조사기간은 2024년 6월 4일 ~ 6월 19일까지였으며 응답자수는 1,042명이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StataSE17로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녀가 동일하게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50대 이하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하였다. 30대 이하의 응답자 비율도 높아 미혼과 기혼의 비율의 큰 차이가 없었다.

농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 이상이 89.3%로 대다수였으며 5점척도로 4.34점이었 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투입할 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 이상이 82.0%로 대다수였으며 5점척도로 4.17 점이었다. 농업을 위한 세금 투입에도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을 육체노동 때문에 힘들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그렇다’ 이상이 81.3%로 대다수였으며 5점척도로 4.13점이었 다. 농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는 인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인상이 농업으로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업이 고소득 산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이 37.7%로 ‘아니다’라는 비중보다는 높았지만 ‘그렇다’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척도로 3.24점으로 보통이었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귀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이 50.1%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5점척도로 3.45점이었 다. 과거에 비해 농산업의 공간은 농촌이라는 인식이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꼭 농촌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 종사자의 증가가 농촌인구 증가에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작을 것

으로 예상된다.

농업에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 상이 79.5%로 대다수였으며 5점척도로 4.00점이었다. 이는 농 업에 종사하기 위한 기술을 따로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농업에 종사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38.0%가 ‘있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의향이 컸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의 삶에 농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이유로 ‘다양한 사업적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38.1%)’, ‘친환경적인 산업이어서(25.8%)’ 순으로 많 이 응답하였다. 소득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아서 소득 때문에 농 업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질문하였 을 때 ‘노동 강도가 심할 것 같아서(37.9%)’, ‘기술이 없어서 어 려울 것 같아서(21.1%)’, ‘소득을 많이 얻지 못할 것 같아서 (16.1%)’ 순이었다. 농업에 대한 종사를 고려할 때 노동 강도와 전문기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도시민의 89.3%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보는 비율은 37.7%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경제적 매력도 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의 미래 비전과 수익 모델 을 중심으로 한 대중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농업에 대한 높은 육체적 부담(81.3%)과 기술 부족 (21.1%) 인식은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활용,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기 반의 농업환경 조성과 함께, 맞춤형 기술 교육과 실습 기회 제공 이 필요하다.